

빅5 건설사, 도시정비사업 '3조 클럽' 달성 경쟁 치열

현대건설, 총 12개 사업 수주 성공
대우건설, 파주1-3구역 재개발 수주
GS건설, 올해 총 11곳 사업권 따내

대형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서울 마천4구역 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한 현대건설을 필두로 3조원의 수주액을 달성하기 위한 이른바 '3조 클럽' 가입 경쟁전이 뜨겁다.

◆현대건설 수주액 3조원 눈 앞

현대건설은 올해 경기 용인 수지 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2279억원)을 시작으로 총 12개 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업계에서 가장 먼저 3조원에 근접한 실적을 기록 중이다. 수주액은 총 2조 9827억원으로 국내 건설사 중 3조원에 가장 근접했다.

이어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건설이 뒤쫓고 있다. 각 건설사별로는 ▲대우건설(2조7421억원) ▲GS건설(2조7394억원) ▲DL이앤씨(2조6587억원) ▲포스코건설(2조6150억원) 등이 3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현대건설 계동사옥 전경. /현대건설

2위 대우건설은 올해 초 흑석11구역 재개발(4501억원)과 상계2구역 재개발(2865억원)을 수주한데 이어 최근에 파주1-3구역 재개발(5783억원)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우건설은 올해 리모델링 전담팀을 만들며 리모델링 시장에 복귀했다. 대우건설이 리모델링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약 12년만이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상반기에만 가락 쌍용1차아파트와 용인 수지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GS건설은 올해 11곳의 사업권을 가져갔다. 지난 3월 2197억원 규모의 대구 서문지구 재개발 수주를 시작으로 4월 창원 신월1구역 재건축, 문정건영아파트 리모델



GS건설 사옥 '그랑서울' 전경. /GS건설

링, 밤섬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권을 따낸 바 있으며 7월 대전 도마변동 12구역 재개발을 비롯해 8월 5833억원 규모의 부산 서금사 5구역과 대전 성남동3구역 재개발, 부산좌천범일 통합2지구 재개발 등을 연이어 수주했다.

◆미아3구역, 과천주공5단지 등 수주전 예고

DL이앤씨는 지난 3월 부산 우동1구

역재건축(5515억원), 군포 산본우럭리 모델링(3225억원) 등 상반기에만 1조 7935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8월에는 5351억원 규모의 북가좌6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DL이앤씨는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비 1조 537억원 규모의 신림1구역에 입찰에 참여했다. 신림1구역 사업권을 따내면 3조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건설은 재개발·재건축 1조 7619억원, 리모델링 8531억원 등 올해 총 13개 사업장의 시공권을 따내 총 2조 6150억원의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대구 노원2동 재개발과 산본 개나리 13단지 리모델링사업의 입찰에 참여해 총회를 기다리고 있다.

하반기 현재 미아3구역, 노량진5구역, 과천주공5단지, 이촌한강맨션 등의 정비사업장이 시공사 선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 사업장에는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롯데건설, HD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등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삼성중, 세계 첫 열전발전 적용 LNG선 개발

연료비·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NYK사와 선박 적용 위한 협약

삼성중공업이 선박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열전발전(Thermo-electric Generator) 시스템을 탑재한 LNG선을 만든다. 열전발전은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기술로, 선박에 이를 적용하는 건 이번이 세계 최초다.

삼성중공업은 LG이노텍과 공동 연구해 세계 최초로 선박용 열전발전 모듈 및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고, 일본 NYK사와 실제 선박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삼성중공업은 오는 12월 NYK에 인도 예정인 17만4000㎥급 LNG운반선의 추진 엔진에 열전발전 시스템을 첫 적용하고 실적을 쌓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열전발전 시스템은 열전반도체의 특성을 활용해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다. 이를 선박 추진 엔진 및 발전기 등 열이 발생하는 장비의 표면에 부착해 전기를 생산하면 연료비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또 열전발전 시스템은 소음과 유해가스 배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회전체

와 같은 기계장치가 없어 유지보수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삼성중공업은 선박용 열전발전 시스템 수요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3월 LG이노텍과 4년여 연구 끝에 나노 구조 다결정 소재를 활용한 열전발전 모듈 및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진동에 강하고 발전 성능을 높였다. 이 시스템은 프랑스 BV선급으로부터 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HSD엔진사와 실제 제품 성능 테스트를 완료하며 기술 신뢰성을 높였다. 5월에는 국내외 특허 기술 출원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신



박광호 LG이노텍 소자소재연구소장(왼쪽부터), 이동연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장, 케이타이노우에 NYK 호선 담당, 최종태 HSD엔진 기술 담당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술(NET) 인증을 받았다.

이동연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장은 "열전발전 시스템은 단기간에 선박 효율을 개선해 이산화탄소 및 운항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라며 "삼성중공업은 환경(E) 분야에서의 신기술 선점을 목표로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IPTV와 명품 사운드가 만났다"... SKB 'AI 사운드 맥스' 출시

뱅앤올룹슨과 협업

뱅앤올룹슨 사운드가 셋톱박스에서도 구현된다. 인공지능 '누구'도 지원한다. SK브로드밴드는 'AI 사운드 맥스'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품은 사운드바 일체형 셋톱박스,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인 뱅앤올룹슨과 함께 개발했다. 국내 IPTV 업계 셋톱박스 중 뱅앤올룹슨과 협업한 것은 처음이다.

SK브로드밴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프리미엄 홈미디어에 대한 고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최고 사운드 장비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AI 사운드 맥스'를 기획했다.

'AI 사운드 맥스' 사운드바는 뱅앤올룹슨의 까다로운 음질 검증 시스템을 통과하고 'audio by B&O' 마크를 새



겼다. 안방에서도 오디오 전문 브랜드가 조율한 음향을 활용,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처럼 생생하고 몰입감 넘치는 명품 사운드로 B tv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별도의 추가 스피커 없이도 음질의 생동감·공간감 구현이 가능한 'Auro 3D' 솔루션을 적용해 최적의 3D 음향도 제공한다. 확연히 차이가 나는 사운드 넓이와 높이 폭을 체험할 수 있다.

B tv 콘텐츠들의 메타정보를 기반으로 한 최적화된 음장모드 기능도 자동

지원한다. 뉴스 시청시 아나운서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구현하거나, 영화나 음악 감상시 저음·중음·고음 모두 놓치지 않고 사운드 밸런스를 잡아주는 등이다.

외관은 가로형(780x97x64mm)으로, 우퍼 40W 2개와 플레인지 15W 2개의 스피커를 장착해 최대 110W의 높은 출력을 자랑한다. 또 스피커에 사운드 특화 처리 기술인 'Quad Core DSP(Digital Signal Processor)' 칩을 탑재해 각 스피커 유닛별 제어로 균형 있고 최적화된 음질을 지원한다.

'누구'도 지원한다. 누구는 SK텔레콤의 음성인식 기반 AI 서비스로, 음성 제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주변 노이즈를 제거하고 음성 인식을 향상하는 전처리 솔루션과, 4개 마이크로 발화 음성을 인식하는 빔포밍 기술 등을 적용했다.

/김재용 기자 juk@

'나홀로 예약·탑승' 1인 여행객 늘었다

제주항공 탑승객 35% '혼행족'
작년 동기 대비 3.6%p 증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1인 여행을 즐기는 '혼행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선 1인 탑승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탑승객 417만명 중 35%인 146만명이 1인 탑승객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기간 국내선 탑승객 265만명 중 31.4%인 83만명이 1인 탑승객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6%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6월 발간한 '2020년 국민여행조사'에서도 '혼행족'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3개년 간 혼행족 비중은 ▲

2018년 2.5% ▲2019년 4.1% ▲2020년 4.8%로 조사됐다.

제주항공은 홀로 여행의 매력 등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재하고 있다. 추첨을 통해 간식 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연다.

또 오는 15일 오전 10시까지 국내선 항공권을 특가 판매한다. 무료로 수하물을 맡길 수 없는 '플라이(FLY)' 운임 기준으로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해 편도 최저 1만1600원부터 판매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수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1인 세대의 생활 방식이 경제와 문화 등 전반에 걸쳐 변화를 만들 것"이라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